

# 正祖 年間 南人 文壇과 知識人의 結束

백 승 호\*

1. 서론
2. 政治的 危機 狀況 속 結束의 文學 活動과 正體性 維持
  - 1) 徐命善과의 갈등과 蔡濟恭의 은거
  - 2) 蔡濟恭과 洪秀輔, 陸萬中, 蔡弘履 관계의 재검토
  - 3) 蔡濟恭, 陸萬中을 중심으로 한 南人 結束의 문학 활동
3. 政治 狀況의 好轉과 內部 葛藤의 彌縫
  - 1) 南人 元老 문인의 상대적 소외와 蔡濟恭 직계 문인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 2) 蔡濟恭, 陸萬中을 중심으로 한 南人 結社의 維持
  - 3) 蔡濟恭 사후 正祖 年間 정치 상황에 대한 소급적 회고
4. 결론

## 1. 서론

이 글은 기획 주제 “正祖代 朝鮮의 學術 地形” 가운데 正祖 年間 南人 文壇의 구도와 그 특징적 면모를 소개하는 글이다.<sup>1)</sup> 南人 文壇의 구도를 밝힌 선행 연구에서는 正祖 年間 蔡濟恭을 중심으로 한 南人의 분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sup>2)</sup> 蔡黨과 洪黨의 분열, 蔡濟恭과 陸萬中の 분열, 大蔡(蔡濟恭)와 小蔡(蔡弘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과 조교수.

1)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2일에 열린 제12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의 기획 주제 가운데 하나인 “正祖代 朝鮮의 學術 地形 - 권력, 지식, 도서”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南人 文壇의 構圖, 南人 詩脈의 研究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 가운데 심경호, 유봉학, 부유섭의 연구는 南人 文壇 研究의 構圖를 제시한 중요한 연구이다. 심경호, 1997 『18세기 중·말엽의 南人 문단』 『국문학연구』 1; 1998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

履)의 분열, 만년의 蔡濟恭과 丁若鏞의 틈새 등을 지적하였다.<sup>3)</sup> 선행 연구가 南人 文壇의 構圖를 선명하게 조망한 성과가 크나 南人の 분열이 일시적인 갈등 상황이었는지, 南人 文壇에 대한 기억을 正祖 死後 南人の 정치적 처지가 위축된 상황에서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소급해서 기록한 것이었는지, 당시의 시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의를 “正祖 年間”으로 한정하여 南人 文壇의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 몇몇 배경적 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7세기 후반 肅宗 年間 換局 정국에서 淸南과 濁南의 分岐가 18세기에 南人の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그 실상보다 과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濁南은 許積을 중심으로 己巳換局에 책임이 있는 南人 내부의 분파이고, 淸南은 許穆 등 己巳換局 정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南人 내부의 분파라 하겠다. 1788년 蔡濟恭이 尹耆東의 상소에 대해 변별하면서 肅宗 年間 南人の 구도를 淸南과 濁南으로 설정하고, 자신을 비롯한 正祖 年間 조정의 南人들을 淸南의 후예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南人の 실상을 보면 淸, 濁의 分岐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상호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蔡濟恭이 이러한 구도를 설정한 것은 18세기 군소 정파가 된 南人の 입장에서 본인들에 가해진 정치적 불리함에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淸南의 후예임을 자처했다고 하겠다.<sup>5)</sup>

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31; 유봉학, 1998 「南人 분열과 畿湖南人 학통의 성립」,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부유섭, 2000 「東州 李敏求와 南人 시맥의 전개」, 『韓國漢詩研究』 8; 2001 「燕超齋 吳尙濂의 생애와 시세계」, 『韓國漢詩研究』 9; 2008 「松谷 李瑞雨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研究』 12; 2010 「菊圃 姜樸의 尙古의 시세계」, 『韓國漢詩研究』 18.

- 3) 蔡濟恭과 丁若鏞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민, 2019 『파란』, 천년의 상상, 122-125면.
- 4) 濁南으로 분류되는 柳命天과 蔡濟恭의 從祖인 蔡彭胤의 친밀한 교류, 李瑞雨와의 교류 등이 대표적이다. 17세기 후반 南人 文壇의 교류가 淸, 濁의 분기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 ‘혼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논문으로는 이사항, 2019 「柳命天과 17세기 南人 문단」, 『한문학보』 40 참조.
- 5) 문내파, 중립파, 문외파의 구별에 관한 논의는 유봉학, 앞의 글 참조. 蔡濟恭 이전에도 南夏正이 『桐巢漫錄』에서 甲戌換局 이후 南人の 분열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18세기 소수 정파가 된 南人の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黨論의 책임을 전가하는 老論 尹耆東의 공격에 대

다음으로 戊申亂의 책임을 南人에게 지우는 시각이 正祖 年間에도 여전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戊申亂의 별칭은 ‘李麟佐의 난’이다. 주동자 李麟佐는 南人 핵심 가문 출신이었다. 李麟佐의 조부 李雲徵은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는데, 李雲徵의 장인이 己巳大臣 權大運이다. 李麟佐의 伯從祖 李義徵 역시 己巳大臣 중 한 명이다.<sup>6)</sup> 李麟佐 가문과 己巳換局을 주도한 이른바 己巳大臣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다.<sup>7)</sup> 尹蓍東이 蔡濟恭을 공격하면서 “己戊餘種”, 즉 己巳換局, 戊申亂의 남은 종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正祖 年間 南人이 소수 정파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己巳換局과 戊申亂의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만큼 그 처지가 곤란했다는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이다.

본 논문은 正祖 年間 南人 문단의 지형을 蔡濟恭과 睦萬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甲戌換局 이후 南人은 失勢하여 宦路 진출이 어려웠다. 다른 정파로 전향하지 않고 南人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온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정치 집단으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특정 시기, 특정 사안에 따라 상호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상 이상으로 과장하는 것보다는 그 갈등의 맥락과 추이를 섬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蔡濟恭과 睦萬中이다. 正祖 연간 조정에서 南人의 위상 변화는 蔡濟恭의 정치적 부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睦萬中은 南人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蔡濟恭을 중심으로 南人이 결속할 수 있도록 협조한 중요한 문인이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사이 南人 문단의 주요 작가인 李瑞雨, 蔡彭胤, 吳尙濂, 姜樸, 吳光運 등 正祖 年間 이전 南人 문단을 형성한 중요 작가들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의 성과에 의지하고자 한다.<sup>8)</sup> 蔡濟恭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해 蔡濟恭이 肅宗 연간 南人의 분기를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己巳大臣은 權大運, 李義徵, 睦來善, 閔黯을 지칭한다.

7) 李麟佐가 南人 핵심 가문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백승호, 2006 『樊巖 蔡濟恭 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0면.

8) 맹영일, 2015 『18세기 전반 백련시단의 형성과 시세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준, 2003 『해암 유경중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재철, 2004 『菊圃 姜樸의 시관』 『한국문학연구』 5; 박무영, 2002 『菊圃 姜樸의 시학: 18세기 南人 계열의 미

는 시기별로 벌였던 시회 활동과, 그 시회가 갖는 시대적 의의를 밝히고 그 문학 활동이 南人の 結束에 기여하였음을 서술하였다.<sup>9)</sup> 다만 선행 연구는 작가론의 차원에서 생애와 시회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시회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였기에 正祖 年間 南人 文壇의 구도라는 문제의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蔡濟恭에 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되, 睦萬中 등 正祖 年間 南人 文壇의 중심 문인들의 경우도 蔡濟恭을 중심으로 南人 문단의 결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正祖代 朝鮮의 學術 地形”으로서 南人을 설명할 때에는 이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결속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문인들의 문집을 보면 正祖 年間 南人은 정치 세력으로서 정파를 유지하기 위해 蔡濟恭을 중심으로 교유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蔡濟恭이 洪國榮과 화응한 역적이라는 오명을 쓰고 은거해야 했던 1780년대조차도 南人은 蔡濟恭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당사자들의 문집과 여타 필기류 성격의 자료를 검토하면 정치적 위기 동안 南人 주요 문인들은 모여서 문학 활동을 하거나 작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sup>10)</sup>

正祖와 蔡濟恭 사후 정치 세력으로서 南人이 몰락하고 各自圖生하거나, 입장에 따라 南人의 지향을 다르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南人의 내부적인 분열이 소급적으로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正祖 年間 당대의 南人 실상을 당사자들의 글을 통해 정리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1780년대 蔡濟恭의 정치적 좌절과 南人 문단 결속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1790년대 南人 문단 갈등의 미봉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적 동향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韓國漢文學研究』 29; 여운필, 2011 『藥山 吳光運의 詩世界』, 『韓國漢詩作家研究』 15, 태학사; 2012 『菊圃 姜樸의 詩世界』, 『韓國漢詩作家研究』 16.

9) 백승호, 2012 『樊巖 蔡濟恭의 詩社 활동과 그 정치적 활용』, 『한문학보』 26; 2006 『樊巖 蔡濟恭 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다만 1786년 蔡濟恭이 平安道 兵馬節度使에 제수되자 徐命善 등이 그를 역적으로 성토하는 국면에서 洪秀輔, 姜世綸, 洪義浩 등 이른바 ‘洪黨’의 南人들이 그를 함께 성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 2. 政治的 危機 狀況 속 結束의 文學 活動과 正體性 維持

### 1) 徐命善과의 갈등과 蔡濟恭의 은거

이 장에서는 배경적인 논의로 蔡濟恭의 정치 역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른 정파의 논핵을 받아 南人이 괴멸할 위기 속에서 蔡濟恭을 중심으로 결속의 문학 활동을 벌이며 南人이라는 정치 세력을 유지했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논의 대상으로 한 시기는 1776년부터 1787년 사이이다.

南人이 正祖 年間 蕩平 정국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蔡濟恭의 역할이 매우 컸다. 1788년 蔡濟恭이 右議政이 되었는데, 이것은 權大運 이후 100년 만에 南人에서 재상이 배출되었던 사건이었다. 수차례 정치적 역경을 딛고 正祖 年間 蔡濟恭이 위와 같은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吳光運의 정치적 입장을 계승하였고 思悼世子를 보호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蔡濟恭은 吳光運의 문인으로서 英祖의 大義理에 동조하는 입장을 계승하였다.<sup>11)</sup> 英祖 역시 吳光運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그를 주목하였다. 그는 1743년 문과에 합격했으나, 당색으로 인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였다.<sup>12)</sup> 1748년에는 기주관으로 임시하고 있다가 翰林召試에 응시하여 수석을 차지했다. 본디 그는 翰林圈點을 받지는 못했는데, 英祖가 특별히 권점을 내려 그에게 기회를 주어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1755년 乙亥獄事 때 問事郎廳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英祖의 정통성을 지지하였는데, 英祖는 이후 그를 특별히 承旨에 제수하였다.<sup>13)</sup>

11) 吳光運은 戊申亂이 일어나자 洪景輔와 함께 李宗城에게 권유하여 즉시 국청의 설치와 궁성의 호위를 제안하였는데, 英祖가 이를 가납한 바 있다. 『英祖實錄』 영조 4년 3월 15일 기사 참조.

12) 문과 합격 후 일시적으로 假注書에 제수되었으나, 동년 11월 丹城 縣監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갔다. 이 시기 蔡濟恭은 서울과 丹城을 오갔는데, 『樊巖集』 권3-4 『丹丘錄』 상하에 저간의 상황이 자세하다. 『承政院日記』 1743년 11월 16일 전후의 기사를 보면 蔡濟恭이 外方に 있어서 假注書에서 遞職되는 기록이 보이고, 1746년 9월 25일에는 文科에 급제하였으면서도 직명이 없는 사람에게 軍職을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蔡濟恭의 이름이 보인다.

13) 『英祖實錄』 권83, 영조 31년 3월 21일 甲午.

蔡濟恭은 思悼世子와의 인연도 깊었다. 일찍이 侍講院 관원으로서 世子를 보필하였고, 1758년 都承旨로 있으면서 英祖가 廢世子 備忘記를 내렸을 때 이를 죽음을 각오하고 돌렸다. 이 일은 思悼世子 보호에 큰 공이 되었기에 正祖年間 그가 思悼世子 숭봉 사업을 주도할 때 정당성의 명분이 되었다. 1762년에는 모친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世子를 폐하라는 명이 내렸을 때 대궐에 나가 부복한 적이 있다. 1760년대에는 兩親 喪을 당해 조정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 시기 陸萬中, 李獻慶 등 蔡濟恭과 동년 또는 비슷한 시기에 문과에 합격한 南人 문인들은 당시 권력자들과 갈등으로 정치적 좌절을 겪었다.<sup>14)</sup>

1760년대를 무사히 넘긴 蔡濟恭은 1770년대 英祖 말년 신임을 받아 兵曹判書, 戶曹判書, 平安道 觀察使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內醫院 提調를 겸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英祖의 服藥을 책임지기도 했다. 1776년 正祖 즉위 후에도 奎章閣 提學, 各曹의 判書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徐命善과 갈등을 빚으며 1780년대의 대부분을 在野에서 실각한 상태로 보냈다. 徐命善과 갈등을 빚게 된 계기는 洪國榮의 누이 元嬪에 관한 일 때문이었다. 蔡濟恭은 徐命善이 정한 元嬪에 대한 예식 절목이 법도에 어긋났기에 元嬪에게 문후를 올리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起草한 元嬪에 대한 哀冊文에 쓰인 “逝”자를 徐命善이 王后에게 쓸 법한 “薨”자로 고친 일이 있었다.<sup>15)</sup> 그런데 1780년 洪國榮이 실각하자 哀冊文의 起頭를 누가 썼는가의 문제를 두고 양자 간에 논쟁이 일어났다.<sup>16)</sup>

이 문제는 단순히 字句의 문제가 아니라 忠逆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기에 徐命善과 蔡濟恭의 관계는 兩立不可였다. 그런데 徐命善은 正祖의 代理聽政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즉위의 정통성을 밝힌 『明義錄』의 義理主人이었다. 1780년 8월 大司諫 趙時偉가 상소하여 蔡濟恭을 논척하였고, 이듬해에도 그를 논척하는 상소가 계속되었다. 그는 잠시 노랑진에 은거했

14) 1760년대 陸萬中은 함경도 利原에 유배된 바 있고, 李獻慶은 司諫으로 지낼 때 南人의 黨論을 지켰다가 黨人으로 몰려 庶人이 된 바 있다.

15) 丁若鏞, 『與猶堂全書』 詩文集 권17, 『樊翁遺事』.

16) 思悼世子 숭봉에 관한 蔡濟恭의 입장이 英祖의 壬午義理와 위배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蔡濟恭의 정치적 실각에 대해서는 최성환, 2016 『樊巖 蔡濟恭의 정치 역정과 정치의 리』 『正祖時代 名宰相 樊巖 蔡濟恭』, 수원화성박물관, 78-85면.

다가 결국 樊里 明德洞 별업으로 은거하였다. 결국 그는 洪國榮과 和應했으므로 逆賊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받으며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 2) 蔡濟恭과 洪秀輔, 睦萬中, 蔡弘履 관계의 재검토

1780년 蔡濟恭이 정계에서 물러났지만 한동안 南人은 蔡濟恭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洪秀輔도 1780년 蔡濟恭의 실각 직후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1783년 5월 즈음까지는 蔡濟恭과 연대 관계를 유지했다. 蔡濟恭이 洪秀輔의 아들 洪仁浩가 中和府使 시절 지은 작품집인 『西得錄』에 서문을 써준 바 있다.<sup>17)</sup> 서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그 서문의 내용과 어조를 고려할 때 蔡濟恭과 洪秀輔 사이가 적어도 1783년 여름까지는 원만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蔡濟恭과 洪秀輔가 결정적으로 결별한 시점은 1786년 正祖가 그를 平安道 兵馬節度使에 제수하여 조정에 다시 복귀시키려고 할 때였다.<sup>18)</sup> 1780년의 상황과 다르게 이때에는 大臣인 徐命善, 李福源 등이 그를 逆賊으로 보아야 한다고 논하였고 거의 모든 조정 신료들이 이에 동의하는 상황이었다. 蔡濟恭이 실각 상태에서 다시 逆賊으로 몰리자 상당수 南人들은 蔡濟恭에게 再起의 可望이 없다고 보았던 것 같다. 洪秀輔, 姜世綸, 洪義浩 등 명문 출신 南人들이 본인까지 逆賊으로 연루될까 두려워 조정에서 蔡濟恭을 논핵하는 데 참여하였다.<sup>19)</sup> 聯名으로 啓를 올리는 데 蔡濟恭의 문하생인 李宗燮, 申光洙의 아들인 申禹相, 姜樸의 손자인 姜世綸이 이름을 올렸다.<sup>20)</sup> 李宗燮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蔡濟恭과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주변인의 강요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sup>21)</sup>

17) 蔡濟恭, 『樊巖集』 권33, 『西得錄序』.

18) 이는 『關衛編』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1786년 洪秀輔가 대사헌으로서 蔡濟恭을 성토하였고, 1788년에는 洪仁浩가 承政院의 覆逆을 청하는 啓에 참여하였다(김시준 역, 1985 『벽위편』, 삼경당, 163-166면).

19) 『正祖實錄』 정조 10년 9월 12일 壬午.

20) 姜世綸은 姜樸의 손자이다. 蔡濟恭이 스승 姜樸의 『菊圃集』을 간행했고, 집안 간의 세교를 고려할 때 姜世綸이 蔡濟恭 論劾에 동조한 것은 近畿 南人 뿐만 아니라 嶺南 南人들에게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成涉(장유승, 부유섭, 백승호 옮김), 2019 『筆苑散語』,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49면.

21) 李在璣, 『訥菴記略』. 『訥菴記略』에 대해서는 이승재 선생의 호의를 입은 바 있다.

1788년 蔡濟恭이 右議政으로 제수된 이후로 그는 다수 南人들을 포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786년의 시점에 자신을 논핵한 인물들은 끝내 배제하였다. 다만 洪秀輔, 洪仁浩 부자는 正祖의 인정을 받아 조정에서 중용되었다. 正祖는 蔡濟恭과 洪仁浩의 화해를 도모했으나 양자 간의 진정한 화해는 이루지 못했다.

洪仁浩는 제주와 기예가 민첩하여 주상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늘 근신으로 두었다. 하루는 주상이 樊巖에게 이렇게 하유하셨다. “경은 어찌 洪仁浩와 유감을 풀지 않는가?” 인하여 洪仁浩에게 명하여 직접 가서 사죄하게 하였다. 洪仁浩가 美洞에 도착하자 주인과 손님이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한다.<sup>22)</sup>

결국 蔡濟恭과 洪秀輔 집안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보합하는 선에서 관계를 정리했다. 이 중재에는 英祖 연간 중요한 南人 문인이었던 李仁復의 손자 李謙煥이 나섰다. 李謙煥의 누이가 洪仁浩, 李宗燮의 부인이었고, 李謙煥의 딸은 蔡濟恭의 양자 蔡弘遠의 부인이었다. 李謙煥이 양 집안과 인척 관계였고 조부 李仁復이 姜樸과 친우 관계이자 蔡濟恭의 젊은 시절 후원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sup>23)</sup>

蔡弘履의 경우 蔡濟恭이 실각한 후인 1780년대에도 벼슬을 했는데, 이는 蔡濟恭이 그에게 자신과 함께 물러나지 말고 조정에 남아 있으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蔡濟恭이 아직 明德洞으로 들어가기 전 노량진에 있을 때 자신을 위해 鄭民始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蔡弘履를 보냈는데, 그 결과 鄭民始는 蔡濟恭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논핵하는 차자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다.<sup>24)</sup>

蔡弘履와 蔡濟恭의 분열이라고 잘 알려진 실록의 기록은 재상 蔡濟恭과 吏曹判書에 임명된 徐浩修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正祖가 개탄한 문맥으로 볼 수 있다.<sup>25)</sup> 徐浩修가 吏曹判書에 제수되었는데, 이를 받아들이고 벼슬길에 나

22) 李在璣, 『訥菴記略』 “雲伯才藝敏悟, 上特愛之, 常置諸近密, 日, 上諭樊翁曰: “卿盍與洪仁浩釋憾?” 仍命雲伯親往謝之, 雲伯到美洞, 賓主敘寒暄而罷云.”

23) 李在璣, 『訥菴記略』 “益令嘗爲兩妹, 屢請樊翁保合, 翁終不贊.”

24) 李在璣, 『訥菴記略』.

25) 『承政院日記』 정조 15년 6월 20일 癸亥: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6월 30일 癸酉: 권33,

아가면 현임 재상 蔡濟恭과 업무상 만날 일이 생기게 되므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蔡濟恭은 徐浩修가 업무에 나오지 않자 다음과 같은 蔡弘履의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이를 임금에게 아뢰었다. 蔡弘履가 1786년 徐命膺의 집에 공무 차 방문했을 때, 徐命膺이 ‘蔡濟恭을 그리워하지만 정치적 입장이 달라 만날 수 없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正祖는 이 말을 듣고 이와 같은 상황이면 徐命膺의 아들 徐浩修가 부친의 뜻을 어기지 말고 判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그러자 徐浩修가 상소를 올려 蔡弘履의 말이 근거 없음을 반박하였고, 蔡弘履는 자신이 말을 모호하게 전한 죄를 사되었다. 그러자 正祖가 蔡弘履가 蔡濟恭을 지난 10여 년간 저버린 것이 크다고 노하였다.<sup>26)</sup>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蔡濟恭은 끝내 蔡弘履를 포용하였고 그를 자신의 시회에 불러들였다. 蔡弘履는 蔡濟恭의 죽질이었지만 부자지간과 같은 사이였고, 특히 蔡濟恭의 문하생 李鼎運과 절친하였다.<sup>27)</sup>

陸萬中은 蔡濟恭과 함께 40여 년 동안 詩社를 함께 이끌어 왔다. 陸萬中이 평생 蔡濟恭과 문학 활동을 함께 했다는 것은 그의 문집 곳곳에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蔡濟恭이 가장 어렵던 시기인 1786년 전후 陸萬中의 행적에 대한 증언을 인용한다.

蔡濟恭이 陸萬中과 沈遠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時輩들이 나를 역적으로 토벌하기를 청하는 상소문이 비록 날마다 公車에 쌓인다 하더라도 필경 나를 죽일 수는 없을 것이오, 우리는 이로 인해 흠어져서는 안 되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李益運이 나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려고 한단데 정말 그러한지 모르겠으니 자네가 李益運을 불러 외주시오.” (중략)

陸萬中이 이렇게 말했다.

“자네(필자 주: 李益運)가 대감의 죄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논하는 것이 가하겠으나 아니라면 어찌 남을 따라서 우왕좌왕할 수 있단 말인가?”<sup>28)</sup>

15년 7월 3일 丙子: 15년 7월 5일 戊寅.

26) 오히려 正祖가 노하는 대목에서 蔡濟恭이 蔡弘履를 얼마나 보호했는데 이를 저버리는 행태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蔡濟恭은 생전 내내 蔡弘履를 아끼며 포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27) 대신 李鼎運의 동생 李益運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蔡濟恭이 1790년대에 蔡弘履를 시회에 부르는 상황과 李益運과 蔡弘履의 간극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선 蔡濟恭이 동당의 결속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그의 핵심 문인인 李益運 조차도 蔡濟恭의 죄를 논하는 상소문을 올릴지 고민했다는 점이다. 李益運이 당시 주변으로부터 전향의 압박을 받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시점에서 蔡濟恭이 陸萬中과 沈達를 의지하고 있으며 陸萬中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李益運을 오히려 단속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9)</sup> 결국 蔡濟恭은 李益運이 사직상소를 올리고 벼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한편 陸萬中이 李鼎運과 더불어 蔡濟恭 伸冤을 위한 상소문을 작성한 것도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陸萬中은 蔡濟恭의 伸冤을 위한 上疏文의 草案을 거의 다 작성하였고 蔡濟恭이 字句를 수정했으며 李益運이 벼슬을 제수받아 본인의 이름으로 상소문을 올렸다고 한다.<sup>30)</sup> 다만 그 정치적 효과는 陸萬中이 아니라 李益運이 크게 받았다. 1786년 10월 正祖가 李益運을 특별히 등용하며 언급했듯이<sup>31)</sup> 李益運은 이 일을 계기로 正祖의 신임을 크게 얻었고 상소문의 초안자 陸萬中은 별다른 보답을 받지 못했다.

이상으로 볼 때 특히 陸萬中은 蔡濟恭의 榮落과 관계없이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蔡弘履는 크게 보아서 蔡濟恭 측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陸萬中처럼 적극적이지는 않고 때로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蔡濟恭과 상대 정파와의 架橋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한편 洪秀輔, 李益運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권력의 향배와 자신의 안위에 따라 정파로서 南人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老論, 小論의 당론에 흔들리거나 심지어 동참하는 南人들이 있었지만, 蔡濟恭은 강

28) 李在璣, 『訥菴記略』 “樊翁招餘翁及沈汝漸-沈達-告曰: “時輩請討之章, 雖日積公車, 必不能殺我, 吾儕不可因此渙散, 或者言季受欲治疏請老夫罪, 未知信否, 君其招季受來.”(중략) 餘翁曰: “君知大監有罪, 則論之可也, 否則豈可隨人勸勤也.”(중략)”

29) 이 점에 대해서는 蔡弘履가 1788년 이후 李益運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 당시를 회고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李在璣, 『訥菴記略』.

30) 李在璣, 『訥菴記略』 “季受以呈告事坐廢數年, 上特除憲職, 公會訪餘翁曰: “吾弟欲上疏訟樊翁冤, 公於今夕與樊巖構草, 明曉當令公晉持來.” 餘翁造樊翁所道其事, 樊翁曰: “此其訟我者, 我何言.” 屬餘翁起草, 草既成, 樊翁點綴數字而已, 曉鼓動, 公晉袖去疏【留中不下】, 而季受際遇之隆, 實昉於此疏云, 樊翁戊申入閣, 賓客始稍稍至.”

31) 『正祖實錄』 정조 12년 10월 21일 己酉.

건한 성품과 結束을 강조하는 문학 활동을 통해 政派로서의 政體性을 유지했다. 그 증거로 『樊巖集』, 『餘窩集』을 보면 睦萬中, 蔡弘履 등이 은거 중인 蔡濟恭을 찾아와 문학 활동을 함께 했던 정황을 잘 알 수 있다.<sup>32)</sup> 蔡濟恭과 睦萬中을 중심으로 한 南人 結束의 문학 활동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 蔡濟恭, 睦萬中을 중심으로 한 南人 結束의 문학 활동

蔡濟恭은 평생 詩會를 지속하며 후학의 문학적 능력을 배양하고, 宦路에 진출 시켰으며, 세력을 결속하였다.<sup>33)</sup> 1786년 이전까지 그는 동대문 밖 10리 떨어진 明德洞에 은거하면서 詩會를 열었는데, 이곳의 지명이 樊里, 또는 樊溪였기 때문에 그 시회를 “樊社”로 지칭할 수 있다. 이 시회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문학 활동을 통해 南人의 결속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은거했던 蔡濟恭을 찾아온 대표적인 南人 문인으로 睦萬中을 들 수 있다. 그의 李承薰의 부친 李東郁, 同年 李獻慶, 족질 蔡弘履, 핵심 문인이었던 李鼎運, 李益運, 吳大益, 俞恒柱, 禹景謨, 禹錫謨, 韓德厚, 丁若鏞의 장인 洪和輔 등이 찾아왔다. 睦萬中은 蔡濟恭의 樊社에 함께하면서 이 외에도 白社, 溪社라는 모임도 열었다. 구성원은 蔡濟恭의 樊社와 거의 일치한다. 南人 문인들이 蔡濟恭과 睦萬中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시회는 蔡濟恭의 明德洞 별업과 睦萬中의 집이 있는 서대문 밖에서 자주 이루어졌다.

蔡濟恭이 실각했던 시기 睦萬中은 명절마다 樊里에 들러 시회를 함께 했다.<sup>34)</sup> 吳大益, 李鼎運 등도 함께 했고 蔡弘履도 초대했다. 小蔡로 불리는 蔡弘履와 攻西派로 분류되는 睦萬中이 蔡濟恭 생전에 그와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

32) 蔡濟恭, 『樊巖集』 권16, 「甲辰春同幼選公會季受及諸兒輩賞花北渚洞仍宿屯舍」. 1786년경의 작품은 『樊巖集』에 거의 실려 있지 않다. 丁若鏞이 증언한 蔡濟恭에 대한 다른 南人들의 외면은 1786년 蔡濟恭이 역적이라고 공격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한 몸조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睦萬中, 蔡弘履는 다시 蔡濟恭과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였다. 丁若鏞, 『餛飩錄』 「洪節度」(2012 『정본여유당전서』 37, 다산학술문화재단, 144면).

33) 南人이 蔡濟恭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양상은 백승호, 앞의 글, 104면 참조.

34) 睦萬中, 『餘窩集』 권3, 「寒食前二日訪蔡尙書樊里別業」; 蔡濟恭, 『樊巖集』 권15, 「九月旣望携餘窩五沙李公會入明德山」.

여주는 작품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1780년 12월 말에 陸萬中이 蔡濟恭과 함께 明德洞에서 세밀을 보내며 歌行體 古詩를 지었다. 그 가운데 『梅花歌, 蔡弘履에게 부친다(梅花歌 寄士述)』라는 작품의 일부를 인용한다.<sup>35)</sup>

(중략)

①

樊巖尙書復高興 번암 채판서가 다시금 흥이 고조되어  
擬到花時促觴政 매화가 필 적이 되니 술자리를 재촉하시네.  
一出靑門遂歲晚 동대문 나서기만 하면 마침 세밀인데  
幽愁閉戶纏衰病 그윽한 근심에 문 닫고 노병에 걸렸었네.

②

明德山中多雨雪 명덕산에는 눈이 많이 내리니  
我亦爲公留數日 나도 공을 위해 며칠 머물렀다네.  
今朝客將花信至 오늘 아침 손님이 꽃 소식 띄고 이르니  
一花二花垂垂發 한 송이, 두 송이 점점 피어나서  
使我聞之心超越 나에게 소식을 듣게 하여 마음을 급하게 하네.

③

燈前每引吳生醉 등불 앞에서 매번 吳大益이 취해 있는데  
雪裏時廻李君轡 눈 속에서 때마침 李鼎運이 고삐 돌려 온다네.  
此夕此時頻悵望 오늘 밤 이 때에 자꾸 슬피 바라보니  
攀枝對花應愁思 가지 잡고 꽃을 보며 응당 근심스러우이.

換韻을 고려하여 단락을 나누면 위와 같다. ①은 매화 핀 것을 계기로 蔡濟恭이 모임을 소집하였던 것을 읊었다. 蔡弘履는 매화를 매우 좋아하여 蔡濟恭이 『憶士述梅花戲草長歌寄士述』<sup>36)</sup>라는 작품에서 그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②는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陸萬中에게 전해 明德洞에 찾아오게 한 정황을 읊었다. ③은 이 당시 詩會의 상황을 전하였는데, 蔡濟恭의 처남 吳大益은 술에 취해 있고, 蔡濟恭의 핵심 문하생이었던 李鼎運도 자리를 함께 했다. 陸萬中이 이러한 상황을 전하면서 蔡弘履에게도 세밀에 明德洞에 와서 함께 술 마시며 시를 짓자고 권유하는 내용을 시로 읊은 것이다. 권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蔡濟恭에 대

35) 陸萬中, 『餘窩集』 권4, 『梅花歌寄士述』.

36) 蔡濟恭, 『樊巖集』 권16, 『憶士述梅花戲草長歌寄士述』. 이 작품 역시 1780년 연말 작품이다.

한 변함없는 지지의 표현으로 세밀 모임에 참석하라고 한 것이다. 蔡弘履가 蔡濟恭을 중심으로 모인 문인 집단의 구성원임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明德洞 시회에서 문인 결속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때 시회에서 歌行體 古詩를 지었다는 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樊巖集』과 『餘窩集』 소재 한시를 보면 蔡濟恭이 지은 운자에 따라 다른 이들이 화답하면서 古詩를 지었다. 李鼎運도 평소 歌行에 장처에 있었다고 한다.<sup>37)</sup> 長篇 歌行을 지을 때 韻字와 段落 구성을 원시와 호응하면서 시상에 화답하는 시를 짓는 것은 뛰어난 한시 창작 역량을 보여준 문학 활동이다. 이처럼 蔡濟恭은 집단의 결속과 문학적 성취를 동시에 거두었다. 그의 다른 시 「歲暮行」에는 은거 중에도 자신감을 과시하였다.<sup>38)</sup>

(중략)

白日西馳水東流 태양은 서쪽으로 달리고 물은 동쪽으로 흐르는 법이니  
古來如此我何愁 예로부터 이와 같은데 내가 어찌 근심하리오.  
山廚櫛櫛燒中夜 한밤중에 산속의 부뚜막에 나무 등걸을 불살라  
暖酒勸君君且留 술을 데워 자네에게 권하노니 자네는 장차 머무시게.  
莫謾擊壺歌一曲 부질없이 唾壺를 두드리며 노래 한 곡조 부르지 마시게.  
大哉吾道長悠悠 크도다 吾道는 길이길이 유장하리니.

이 시의 결말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 시 역시 睦萬中과 함께 지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비록 '失脚했지만 失意하지는 않는다'는 蔡濟恭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지금의 정국은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다. 그러니 魏武帝의 樂府 「步出夏門行」을 唾壺를 치며 부르던 王敦처럼 불평 강개한 기분을 노래로 풀지 말고 睦萬中 당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도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이곳에 머물렀다 가라는 뜻을 시로 표현하였다. 결구의 표현은 직설적이지만 蔡濟恭의 기상을 보인 秀作이다.<sup>39)</sup>

37) 장유승, 2016 「蔡濟恭 簡札帖 解題 및 國譯」, 『正祖時代 名宰相 樊巖 蔡濟恭』, 수원화성박물관, 244면.

38) 蔡濟恭, 『樊巖集』 권16, 「歲暮行」.

39) 「歲暮行」에 대해서는 백승호, 2012 앞의 글, 113-115면.

이 사례처럼 『樊巖集』과 『餘窩集』에는 蔡濟恭의 정치적 시련기 1780년대에도 변함없이 지지를 보여주는 南人들의 결속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陸萬中 역시 蔡濟恭을 지지하였고, 그가 열었던 詩會의 주요 구성원과 蔡濟恭의 樊社 구성원은 겹치는 인물들이 많았다. 韓德厚, 李鼎運, 俞恒柱, 吳大益, 李東郁, 丁載遠, 蔡弘履, 洪秀輔, 沈堞, 尹弼秉, 權師彥 등이었다. 참여 인물을 잠시 살펴보면 李鼎運은 蔡濟恭의 핵심 문인이었고, 吳大益은 蔡濟恭의 처남이자, 吳光運의 조카이며, 李東郁은 최초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李承薰의 부친이다. 丁載遠은 丁若鏞의 부친이고 權師彥은 濁南의 거두 權大運의 후손이다.

陸萬中은 丁若鏞의 부친 丁載遠과 사이가 긴밀했다. 1783년에는 漢江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일대를 유람하고 陽根의 丁載遠의 집을 찾아갔다.<sup>40)</sup> 그는 吳大益, 尹弼秉, 李鼎運, 丁若鏞과 함께 水鍾寺에도 올랐는데 자세한 사정은 丁若鏞의 「遊水鍾寺記」에 자세하다.

陸萬中이 蔡濟恭 그룹의 핵심 문인이었고, 1780년대 그룹 내 다른 문인들과 긴밀한 교류를 했다는 증거는 문집 곳곳에 보인다. 1784년 중앙절에 明德洞에서 蔡濟恭과 함께 하지 못하자 「有懷樊巖」이라는 작품을 지었고, 1785년에는 明德洞을 방문하여 「樊里次主人壁韻」이라는 작품을 지었다.<sup>41)</sup> 1784년 陸萬中은 吳大益과 시회를 열었고, 동년 蔡弘履 집에서 李鼎運과 함께 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1785년에는 蔡弘履 집에서 李東郁과 함께 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개별 문인들의 문집을 보면 1780년대 蔡濟恭을 중심으로 하는 결속은 여전히 이상이 없었다.

蔡濟恭은 동시에 嶺南 南人들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였다. 1780년대 尙州의 李萬敷 집안의 후손, 趙德鄰 집안의 후손 등과 교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 시기 그들 선조의 문집에 서문을 쓴다든지, 묘도문자를 작성해 준다든지 하는 일을 수락하면서 서신 왕래가 빈번하였다.<sup>42)</sup> 李象靖의 문인 鄭忠弼도 1783년 선조 鄭克後<sup>43)</sup>의 묘지명을 부탁하는 편지를 蔡濟恭에게 보냈다. 이 시기 蔡

40) 陸萬中, 『餘窩集』 권5, 「與丁器伯韓景善一之同舟至奉恩寺」; 「狎鷗亭」; 「鶴灘」; 「廣津」; 「夢烏亭丘墟」; 「曳船」; 「宿唐汀」; 「未到斗江十里, 彝仲諸人小舟來迎」.

41) 陸萬中, 『餘窩集』 권5, 「樊里次主人壁韻」.

42) 蔡濟恭과 주실 漢陽 趙氏 가문의 교류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2 「조선후기 京南과 嶺南의 교류 양상」 『한국사상과 문화』 15 참조.

濟恭은 嶺南 南人 관련 서문, 묘도문자를 작성하면서 嶺南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했으며, 近畿 南人과 嶺南 南人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그가 1788년 우의정이 되었을 때 戊申亂 60주년을 맞이하여 嶺南에서 창의를한 嶺南 南人들을 선양하였고, 正祖는 이를 받아들여 權萬 등을 포상하고 趙德隣, 金聖鐸, 黃翼再의 신원을 주청하는 儒疏도 받아들였다.

1780년대 南人은 정치적으로 위기였지만, 집단의 결속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蔡濟恭은 시회를 통해 본인의 결속력을 시험하였고, 南人 文壇의 주요 문인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비록 南人의 젊은 문인들이 西學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蔡濟恭도 陸萬中도 이를 진심으로 경계하는 뜻을 보이며 그들을 걱정하고 포용하려 하였다.<sup>44)</sup>

### 3. 政治 狀況의 好轉과 內部 葛藤의 彌縫

#### 1) 南人 元老 문인의 상대적 소외와 蔡濟恭 직계 문인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이 장에서는 蔡濟恭이 조정에 복귀하면서 다른 南人 문인들도 조정에 증용되었던 시기 南人 문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1788년부터 1800년 사이를 다룬다. 1788년은 蔡濟恭이 右議政으로 발탁되고 老論, 少論, 南人 출신 재상이 골고루 등용되어 正祖의 蕩平 政局이 일견 완성된 시점이다. 1791년 珍山事件, 1792년 嶺南萬人疏 事件 등이 있었지만 正祖가 金藤文書를 공개하였고 蔡濟恭은 正祖로부터 壬午義理의 義理主人으로 인정받으며 思悼世子 숭봉사업을 주관하였다.<sup>45)</sup>

43) 鄭克後는 본관이 영일로 鄭述와 張顯光의 문인이었다. 이미 李玄逸이 행장을, 李衡祥이 묘지명을 작성했다. 후일 이 편지를 받은 蔡濟恭이 묘갈명을 작성했다.

44) 蔡濟恭, 「送人之燕京序」 『樊巖集』 권33; 陸萬中, 「寄幼文行中」 『餘窩集』 권5. 蔡濟恭은 李承薰에게, 陸萬中은 李東郁에게 준 글이다. 모두 년지시 西學을 경계하였지만 그들을 배척하는 어조가 아니라 조심시키고 포용하는 어조의 작품들이다. 南人 문인 상호 간 사승, 교우, 친인척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45) 丁範祖, 『海左集』 권24, 「領議政諡文肅蔡公神道碑銘」, “公之平生秉執, 最嚴於逆順之辨, 嘗

이 시기 南人은 선진과 후진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蔡濟恭의 견재와 正祖의 비호로 인해 葛藤이 彌縫된 채였다. 彌縫된 갈등은 蔡濟恭의 동년배 耆元老 문인들과 蔡濟恭의 문하생 연배 문인들 사이의 西學을 둘러싼 견해 차이, 그리고 연배와 정치적 영향력 사이의 불일치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西學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교회사 연구에서 주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政治 狀況 好轉 이후 南人 내부의 권력 분배 과정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睦萬中과 蔡濟恭은 40년 동안 시사를 결성하여 교유가 매우 친밀해서 남들이 이 간시킬 수 없었다. 1785년 이후 蔡濟恭 귀에 들어가는 말은 모두 桃坡人들의 말이어서, 이미 칠분 정도는 그를 의심하였다.<sup>46)</sup> 1788년 蔡濟恭이 宰相이 된 후로 또한 (睦萬中이) 美洞에 출입하였으나 새롭게 귀해진 인물이 당에 가득해서 감히 한 마디 잡담도 꺼내지 못하였으니, 그 신세가 蔡弘履와 다를 바 없었다. 이에 致薰이 비로소 손을 쓸 수 있었다.<sup>47)</sup>

위 인용문에서 “새롭게 귀해진 인물(新貴)이 당에 가득했다”는 표현은 이후 南人의 정치 상황을 볼 때 李益運 등 蔡濟恭의 문하생을 지칭한다. 또한 1785년 추조적발사건을 발단으로 천주교 문제에 관해 睦萬中과 蔡濟恭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睦萬中은 1786년 蔡濟恭의 伸冤 상소 초안을 작성하고 南人 내부의 이탈을 단속하는 데 앞장설 정도였다. 1790년대에 蔡濟恭은 변함없이 睦萬中과 교유를 지속했지만 나이가 이미 일흔을 넘어서고 있었고, 문하생들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었다고

於上前陳異趣者，混稱南人爲戊申餘黨，而南黨中清·濁之分已久，從逆者，是濁黨子孫，守正者，是清黨，其說甚斷，而戊申義理白。至若公結輔胸腹，垂數十年而不洩者，瀝血一疏，以性命爭，挾風霜，炳日星，而壬午義理白。無怪其與公背馳者，讐視公常欲殺之，而聖上每許公以義理主人。”

46) 吳錫百, 睦祖元, 李聞德, 洪遼 등 南人 소장 강경론자들이 桃谷과 靑坡에 살아 桃坡人이라고 불렸다.

47) 李在璣, 『訥菴記略』 “餘翁與樊相結詩社四十年, 交契甚密, 人不可得以基間也. 乙巳後入樊相之耳者, 皆桃坡言也, 已七分疑之也. 戊申入相後亦嘗出入美洞, 而新貴滿座, 不敢出一言雜談, 身世與述台無異, 於是致薰始得下手.”

볼 수 있다.

여기서 蔡濟恭의 문하생들이 蔡濟恭의 동년배들보다 환로 진출에 유리했고, 이와 관련하여 원로 陸萬中과 蔡濟恭의 문하생들 사이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蔡濟恭보다 7년 연하인 陸萬中(1727년생)은 문과에 합격하고서도 1760년대 당시 權臣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微官末職을 전전하거나 隱居하였다. 그는 1793년 즈음에야 비로소 兵曹參議가 되었고 이후에도 實職보다는 閑職을 받았다. 그의 정치적 이력은 그의 뜻을 펴기에 완전히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陸萬中의 관직 생활은 蔡濟恭과 부침을 같이 했고 늘 동년배로서 그의 곁을 지켰지만, 언제나 蔡濟恭의 그늘에 가려졌다. 그는 자기보다 후배인 蔡濟恭의 문하생들이 자신보다 실권 있는 자리에 관료로 나아가는 것을 보아야 했다. 또한 천주교에 대한 그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동당의 일부 후배들한테서 경계와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丁範祖(1723년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관력이었으나 관직에 연연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는 1763년 文科에 합격하였으나 여러 차례 관직을 사양하였고, 1772년에야 弘文錄에 올랐다. 詩人으로서 명성이 높아 英祖가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 관직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지 않았다.<sup>48)</sup> 私心 없는 인사로 名聲이 있어 都目政事 때 吏曹參判에 제수되어 서울로 올라와도, 都目政事가 끝나자마자 바로 原州로 내려가곤 하였다.<sup>49)</sup>

반면 蔡濟恭의 직계 문인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했다. 1760-70년대 蔡濟恭이 문생들을 교육시켜 小科, 大科에 합격한 南人 官僚를 상당수 배출하였는데,<sup>50)</sup>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李鼎運(1743년생)은 1780년에 弘文錄에 올라 弘文館의 清要職을 거쳤고 承旨로서 임금을 지근에 모셨으며 1789년에 司諫院 대사간이 되었다가 各曹의 判書를 역임하였다. 또 다른 문생들인 李益運(1748년생), 李儒慶(1748년) 등의 관력도 이 경우와 유사하다.

48) 1773년 지은 100韻 장편 「建功歌」가 대표적이다. 丁範祖, 『海左集』 권5, 「建功歌」.

49) 李益運이 正祖의 뜻이라며 丁範祖가 서울에 머물 것을 권했지만 朝報에 공표된 것이 아닌 비공식적인 명에는 부응할 수 없다고 바로 내려간 일화가 있다. 丁若鏞,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17, 「海左公遺事」.

50) 백승호, 2012 앞의 글; 이승재, 2018 「蔡濟恭 「貞元錄」 연구」 『근역한문학연구』 50 참조.

李儒慶과 李益運은 동갑내기 절친한 벗이었고, 두 사람 모두 蔡濟恭에게 수십 년 동안 지도를 받아 蔡濟恭의 핵심 문생으로 취급되었다. 正祖 역시 蔡濟恭, 南人和 소통하는 신하로서 李益運을 활용하였다.<sup>51)</sup> 李益運은 1789년부터 1800년까지 근 10년 동안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承旨로서 正祖를 지근에서 보필했다.<sup>52)</sup> 正祖는 그를 吏曹參議에 임명하면서 ‘蔡濟恭이 곤경에 처했을 때, 李益運만이 자취가 우뚝하였다’고 하며 그를 칭찬하였다.<sup>53)</sup> 李儒慶은 蔡濟恭의 姨從姪이었는데, 일찍 부친을 여의고 어릴 적부터 蔡濟恭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그의 親炙를 입었다.<sup>54)</sup>

丁若鏞(1762년생)의 경우 李益運보다 14년 연하였는데, 1789년 문과에 합격하여 전도유망한 신진 관료였다고 하겠다. 그는 蔡濟恭의 養子 蔡弘遠과 절친하여 1794년 竹欄詩社를 결성하였다. 蔡濟恭도 이들 모임을 후원하며 丁若鏞에게 기대를 했었다.<sup>55)</sup> 1790년대 시점에서 丁若鏞의 위상은 南人 新進 문인 가운데 우뚝한 위상이었으나 1762년 생으로 위에 언급한 南人 문인들보다 한참 연소한 입장이었다. 蔡弘遠은 丁若鏞과 동갑이고, 蔡濟恭의 재종질 尹永僖는 1761년생이었다.<sup>56)</sup> 이들을 중심으로 南人 소장 문인들이 결집하고 있었는데, 부자 관계인 蔡弘遠, 숙질 관계인 尹永僖로 인해 蔡濟恭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보면 1790년대 南人 문단의 구도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蔡濟恭과 동년배의 문인으로 丁範祖, 睦萬中, 李東郁, 丁載遠 등 南人

51) 正祖가 沈煥之에게 편지를 보내고 때로는 구두로 의사를 전할 때 掖隸를 보내기도 하였지만 때때로 徐龍輔 등을 활용했던 점과 유사하다.

52) 李益運의 자세한 생애와 관력에 대해서는 장유승, 앞의 글 참조.

53) 『正祖實錄』 정조 15년 7월 21일 甲午.

54) 丁若鏞, 『與猶堂全書』 詩文集 권18, 「示二子家誠」. 李儒慶의 자는 而善, 호는 淸心翁, 본관은 咸平이다.

55) 죽란시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안대회, 2013 「다산 정약용의 죽란시사 결성과 활동 양상: 새로 찾은 죽란시사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3.

56) 1792년 蔡濟恭이 尹永僖를 두둔하다가 長湍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가 李之億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蔡濟恭이 그에게 더욱 책임을 느꼈던 것 같다. 蔡濟恭은 어린 시절 외삼촌 李之億의 집에서 기거하며 자식처럼 자랐다. 蔡濟恭 자신과 李之億의 관계처럼, 친자식이 없었던 蔡濟恭은 여러 조카, 종질들을 자식처럼 길러내었다고 한다. 李儒慶, 尹永僖, 鄭鴻慶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실록에는 蔡濟恭과 인척 관계로 맺어진 종질, 재종질, 삼종질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원로급 문인들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蔡濟恭 문하생 급의 문인으로 李鼎運, 李益運, 李儒慶, 兪恒柱, 尹弼秉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丁若鏞과 같은 신진 문인들로서 크게 보아서 문인이라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蔡濟恭의 후원을 받는 문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달랐으나 蔡濟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내부 갈등을 미봉한 채 南人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sup>57)</sup>

## 2) 蔡濟恭, 睦萬中을 중심으로 한 南人 結社의 維持

1791년 珍山 사건으로 蔡濟恭과 睦萬中이 결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을 검토해 보면 蔡濟恭을 중심으로 南人 官僚 文人들이 결집해 있고 睦萬中도 이에 협조하면서 南人 문단을 유지하였다. 물론 사건 처리 과정에서 睦萬中이 蔡濟恭과 그 문하생들에게 서운함이 남았고, 南人 신진들은 睦萬中 등 同黨의 元老들에게 감정이 쌓였다. 그러나 蔡濟恭이 이를 보존한 것으로 보인다. 西學에 대한 입장은 南人 내에서 安鼎福, 李獻慶, 睦萬中이 반대 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들은 여러 차례 蔡濟恭에게 편지를 보내 경계를 하였다. 蔡濟恭은 正學인 性理學을 확립하면 말단인 西學은 자연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sup>58)</sup> 珍山 事件이 일어나자 睦萬中은 權日身을 고발하는 통문을 돌렸다. 睦仁圭는 이와 같은 취지의 편지를 洪樂安에게 부쳤다.<sup>59)</sup> 洪樂安이 이 사건을 蔡濟恭에게 상의하면서 天主教를 黃巾賊, 白蓮教에 비유했다. 천주교를 반역과 연관시켰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蔡濟恭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계자를 신문하였는데, 權日身을 教主로 지목한 睦萬中 부자도 불러서 진술하도록 하였다. 姜浚欽이 쓴 睦萬中에 대한 墓誌銘에 당시 睦萬中이 느꼈던 서운함이 잘 서술되어 있다. 蔡濟恭이 丁若鏞과 蔡弘遠을 庇護하느라고 珍山 事件을 명확하게 처리하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주된 내용이다.<sup>60)</sup>

57) 세 번째 부류의 南人 문인은 蔡濟恭의 관직 진출과 고령으로 인해 두 번째 부류의 문인들 같이 蔡濟恭이 직접 공부를 시킬 기회가 적었다. 蔡濟恭과 교유가 빈번했던 첫 번째 부류 문인들의 모임에 자제들로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58) 蔡濟恭, 『樊巖集』 권24, 「請嚴懲西洋邪學仍論洪樂安劄」; 권31, 「請嚴禁西洋學啓」.

59) 『正祖實錄』 권33, 정조 15년 11월 3일 甲戌 “楊根士人權日身, 不但已發於臣之書中者, 此是播騰一世, 無人不道. 故前都正睦萬中所製通文 及進士睦仁圭 抵書士林, 以斥其自作教主之罪焉”

1791년 珍山 事件에서 보인 陸萬中의 태도로 인해 교회사 연구에서는 陸萬中을 攻西派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주목하고 있다.<sup>61)</sup> 문학 연구자들도 교회사 연구에서 굳어진 陸萬中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陸萬中을 攻西派의 선봉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餘窩集』을 보면 陸萬中이 西學에 관한 입장과 상관없이 여전히 南人 문단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李承薰의 부친인 李東郁, 丁若鏞의 부친인 丁載遠과 정말 깊은 교분을 나눈 기록이 곳곳에 보인다. 珍山 事件 이후로도 그는 蔡濟恭과 교유를 계속하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의 손자 陸台錫이 쓴 「行狀」에서는 1790년대 이후 陸萬中과 蔡濟恭의 교유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끝내 서로 저버리지 않은 것이 이와 같았다”라고 평가하였다.<sup>62)</sup>

정리하자면 1790년대에는 蔡濟恭과 陸萬中의 관계 지속을 통해 南人 문단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蔡濟恭은 西學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南人 전체를 포용하려고 하였다. 陸萬中은 蔡濟恭과의 교유를 계속하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西學을 반대하는 南人 문사들을 수용했다. 陸萬中을 중심으로 蔡弘履, 李基慶, 姜浚欽, 洪若浩, 洪仁浩 등이 결집하였다. 이 두 사람의 연대로 인해 南人 內部の 葛藤이 일단 彌縫되었다고 하겠다.

문집 자료를 확인해 보면 陸萬中은 계속해서 蔡濟恭의 집을 드나들었고<sup>63)</sup> 李益運의 형 李鼎運에게도 시를 보내고<sup>64)</sup> 丁若鏞의 아버지인 丁載遠에게도 시를 보내었다.<sup>65)</sup> 吳大益,<sup>66)</sup> 尹弼秉과도 교유를 계속하였다. 1796년 그는 杜甫의 「存沒絕句」를 본따 시를 지으며 申光洙, 丁範祖, 丁載遠, 韓光傳, 兪恒柱, 蔡弘履, 李東遇, 申光河, 沈堧, 尹弼秉, 李東郁, 李鼎運을 그리워하였다. 「存沒絕句」라는 작

60) 姜浚欽, 『餘窩先生集』 제11책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陸公神道碑銘」,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백승호, 2006 앞의 글 26면 재인용).

61) 李能和, 1968 『韓國基督教及外交史』, 신한서립영인본; 김봉남, 2014 「茶山과 天主教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 고찰」, 『대동한문학』 41.

62) “自其秉軸, 契好不能如前, 然終始不相負如此.”(陸台錫, 『餘窩集』 권23, 「先祖考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府君狀」, 한국문집총간 속집90, 437면)

63) 陸萬中, 『餘窩集』 권6, 「樊巖宅次題碧韻」, 1794년작.

64) 陸萬中, 『餘窩集』 권7, 「贈湖西伯李公會」.

65) 陸萬中, 『餘窩集』 권6, 「晉牧丁器伯有書詩以答之」, 1791년작.

66) 陸萬中, 『餘窩集』 권6, 「雲巖吳景參步武夷九曲韻 贈賦雲仙九曲見寄求和」, 1794년작.

품의 문학적 관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의 대상이 된 南人 문인들은 睦萬中이 일생동안 가장 친했던 문인이었다. 睦萬中은 이들에 대해서는 생전에 끝까지 友情을 같이 하였다. 睦萬中이 지은 懷人詩 가운데서 李東郁과 李鼎運을 그리워 한 작품을 인용한다.

杜甫의 存沒絶句를 읽고서 그 시체를 본떠 감회를 적는다.

여섯 번째

讀杜工部存沒絶句 倣體述感

其六

平地狂瀾遂陸沉 평지에서 미친 물결을 만나 마침내 은거하였건만  
 忘年曾是托交深 일찍이 망년지교를 의탁한 사이였다네.  
 幼文永隔冥冥恨 李東郁과는 영결하였으니 막막하게 한스럽고  
 公會相望脈脈心 李鼎運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애뜻한 마음일세.

참관 李東郁, 자호 蘇巖 참관 李鼎運 자호 五沙에 대한 시이다.

李參判東郁自號蘇巖 李參判鼎運自號五沙

이 시는 1796년 시점에서 睦萬中이 절친하게 지냈던 인물들을 그리워하는 懷人詩이다. 起句는 아들 李承薰으로 인해 1791년 이후 李東郁이 벼슬에서 물러나야 했던 일을 언급하였다. 승구는 1727년생인 睦萬中이 1739년생인 李東郁, 1743년 李鼎運이 忘年之交를 나눈 사실을 언급하였다. 睦萬中이 이들과 시사를 결성할 때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전한 바 있다.<sup>67)</sup>

(중략)

忘形復忘年 걸모습도 잊고 또 나이도 잊고  
 墮地如伯仲 이 땅에 던져진 형제처럼 지내세.

(중략)

歲寒與爲期 세한의 지조를 함께 기약하리니  
 矢言以相諷 직언으로 서로 풍간하세.

67) 睦萬中, 『餘窩集』 권2, 「結社」.

다시 본 시로 돌아가서, 전구와 결구에서 1796년 졸한 李東郁과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해 있는 李鼎運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다. 懷人詩의 대상이 되는 문인들에 대한 陸萬中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蔡濟恭의 말년 시기 시집인 『稀年錄』을 보면 蔡弘履와 陸萬中이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를 짓는다. 이 자리에는 李鼎運, 李益運도 함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蔡濟恭이 蔡弘履를 포용하는 장면은 다음 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십오일 밤에 蔡弘履, 李鼎運이 琴師와 歌妓를 데리고 와서 모였다.  
十五夜士述·公會率琴歌來會

圓月高齋夜 높다란 집에 둥근 달 떴는데  
清琴復在茲 맑은 거문고 소리가 여기 더 있네.  
自能吾社盛 우리 시사가 저절로 성대해졌으니  
不受歲華欺 세월에 압도되지 말게나.  
艷曲香薰席 농염한 곡조에 좌중에는 좋은 향기가 풍기고  
傾河影轉卮 빼뚜름한 은하수에 별빛이 잔에 감도네.  
午橋皆勝事 배도의 녹야당에는 모두 멋진 일이니  
元白解吟詩 원진과 백거이 같은 두 사람이 시를 잘 짓는다네.

당나라 때 중서령 裴度는 은퇴 후 낙양 남쪽 午橋에 별업 綠野堂을 짓고 白居易, 劉禹錫 등 문인들과 문학 모임을 가졌다. 蔡濟恭은 자신을 裴度에 비유하고, 자신의 별업을 찾아온 蔡弘履와 李鼎運을 白居易와 元稹에 비유하였다. 비록 자신들은 노인이 되었지만 詩社를 함께 하며 同黨의 文人으로 소중히 평가하였다. 훗날 丁若鏞은 『竹帶先生傳』, 『梅丈吳-錫忠-墓誌銘』 등의 글에서 陸萬中, 蔡弘履가 蔡濟恭을 배반하였다고 서술하였지만, 蔡濟恭은 생전에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3) 蔡濟恭 사후 正祖 年間 정치 상황에 대한 소급적 회고

蔡濟恭 생전에는 이들 간의 갈등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사후에 작성된 丁若鏞의 陸萬中에 대한 비판, 陸萬中의 丁若鏞에 대한 비판, 陸萬中의 李益運에 대한 비판, 李益運의 丁若鏞에 대한 비판을 보면, 辛酉迫害 이후 극도로 악화된 정치

적 상황 하에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sup>68)</sup> 그 가운데 丁若鏞은 후대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가 쓴 글에서 攻西派로 지목된 睦萬中은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서 李承薰, 李家煥, 丁若鏞을 논척하는데 앞장선 인물로 선입견이 고정되었고 10년 간 正祖를 곁에서 모신 李益運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잊혔다. 李益運의 『百一錄』에서 丁若鏞에 대해 기록한 바를 인용하기로 한다.

기미년(1799) 여름 영춘현에 입시하고 있었다. 주상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丁若鏞이 경의 단점을 나에게 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구나.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됨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권세가 재상 蔡濟恭보다 십 배나 더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南人에게 무익하다고 한다. 李皙도 경의 단점을 많이 들추어내는 것이 西人보다도 심하다. 모르겠구나. 무슨 연고로 경이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인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 것인가?”

신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丁若鏞은 제가 吏曹에 있을 때 그의 형 丁若鉉을 위하여 여러 차례 初仕 자리를 구하였는데 신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시다. 그랬더니 과연 크게 원한을 품고 올해부터는 전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시다.”<sup>69)</sup>

1797년 이후 李益運과 丁若鏞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기록이 다. 李益運이 正祖 앞에서 올린 말을 기록한 것이니 그 타당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丁若鏞은 1786년 말에 洪秀輔, 洪仁浩 부자와 화해를 한 기록이 있다. 본디 洪秀輔는 丁若鏞의 처삼촌이었고, 洪仁浩는 사촌 동서지간이었기 때문에 왕래가 없을 수 없었다.

68) 睦萬中의 연보, 李益運의 『百一錄』, 丁若鏞의 「貞軒墓誌銘」, 「竹帶先生傳」, 「梅丈吳-錫忠-墓誌銘」 등 일련의 글이 그러하다.

69) 李益運, 『百一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己未夏 入侍于迎春軒. 上曰: “丁若鏞多以卿短處, 使之聞之於予. 而或謂之其人不足信, 或謂之權威十倍蔡相, 或謂之無益於午方. 李皙亦語卿事多挾搆, 甚於西人. 未知何故卿之見忤於此輩, 有何所由而然否?” 臣對曰: “若鏞則臣之居銓也, 爲其兄若鉉, 屢求初仕, 而臣一不照望, 果大啣之, 自今年歲後, 一未相訪.” (중략)”

洪仁浩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략)

“지난 번 筵席에서 주상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洪仁浩)과 정아무개(丁若鏞)는 예전에 사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난날 괴괴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만나서 풀어버렸습니다. 작년(선달 그믐날) 丁若鏞이 신의 아버지 洪秀輔를 와서 만났기에 지금은 승강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피차 모두 다행이로다.’(중략)<sup>70)</sup>

위 인용문은 丁若鏞이 기록한 洪仁浩의 발언이다. 正祖가 洪仁浩와 나눈 말을 丁若鏞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다. 1797년 丁若鏞이 同副承旨에 제수되었을 때, 그는 이를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다. 洪仁浩는 출사를 권하는 正祖의 명을 전하는 承旨로서 6월 22일 丁若鏞을 찾아왔다. 正祖가 洪仁浩를 보내면서 ‘丁若鏞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데 괜찮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위와 같이 대답했다. 洪仁浩가 오자 마침 同席해 있던 蔡弘遠은 곧바로 자리를 떴다고 한다.<sup>71)</sup> 흥미로운 점은 1796년 8월까지, 그러니까 연말에 洪秀輔를 찾아가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丁若鏞은 李益運의 집을 찾아가 蔡弘履, 李鼎運, 尹弼乘 등이 참석한 시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sup>72)</sup>

위에서 인용한 몇몇 글들에서 볼 수 있듯이 24년에 달하는 正祖 연간 南人이라는 문인 집단을 고정적인 관점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문인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친밀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누구와 잘 지내더라도 다른 문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만 正祖 年間 南人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하나로 결속되는데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고, 이들 문인을 통해 南人이라는 문인 집단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70) 頃筵上曰: ‘卿與丁某向來有事端, 今則何如?’ 仁浩曰: ‘伊時有怪怪說話, 其後相對說破, 昨年【除夕也】丁來見臣父, 今則不欲撕捩矣.’ 上曰: ‘然則彼此俱幸矣.’

71) 丁若鏞, 『舍珠日錄』(2012 『정본 여유당전서』 37, 다산학술문화재단, 84면) “蔡【弘遠】來訪, 方話時, 洪【仁浩】忽乘輅來訪, 蔡即起去.” 蔡濟恭과 洪秀輔와의 갈등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72) 丁若鏞, 『與猶堂全書』詩文集 권3, 『李季受宅 同諸公賦【尹參判弼乘 蔡判書弘履 李參判鼎運兄弟諸人也】』: 『李季受宅陪大陵諸老飲』.

蔡濟恭 서거 후 19세기 들어 제각각 자신들이 ‘蔡濟恭의 유지를 계승한다’라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蔡濟恭의 후광을 업어야만 南人을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73)</sup> 陸萬中 그룹에는 蔡弘履, 조카인 崔鴻晉, 姜浚欽, 洪仁浩, 李基慶, 洪若浩, 朴鸞斯, 權侴, 柳光鎭, 洪克浩, 陸祖永, 李廷書, 申顯祿, 蔡弘韻, 李在璣, 權倚, 李游夏, 李泳夏, 沈奎魯 등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西學은 無父無君의 위험한 학문이었고 자칫하면 당과 전체를 당화에 휩쓸리게 할 것이었다.

李益運의 『百一錄』에는 신유년(1801) 이후 陸萬中이 西學에 물든 사악한 무리를 척결하기 위해 李基慶과 연합하자고 李益運에게 제의하였으나 李益運이 이를 一言之下 거절하였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이후 陸萬中이 李益運을 西學徒라고 음해하였으므로 둘 사이가 결렬되었다. 李益運의 아들 李明鎬는 1801년에 西學徒로 지목되자 자결하였고, 陸萬中은 이 일을 문제 삼았다. 南人 내부에서 陸萬中 그룹과 李益運 사이의 갈등이 내재해 있다가 이후 분기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하겠다.

陸萬中이 1803년에 蔡濟恭의 집을 지나갔는데, 당시에 이미 蔡濟恭은 관직이 추탈되고 후손들은 영락해서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陸萬中은 蔡濟恭과 함께 시사를 맺고 시를 논하던 40년 세월을 회고하면서 蔡濟恭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던 일을 떠올리며 강개한 정을 토로하였다.<sup>74)</sup>

黃嗣永 帛書 사건 이후 西學 문제가 反逆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南人의 결속은 와해되고 各自圖生하기 위해 同黨의 文人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親友의 아들마저 西學徒로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7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南人의 급작스런 몰락을 고려해 보면, 세력 면에서 소수 정파였던 南人이 正祖 年間 결속을 통해 하나의 집단을 유지해야 했던 과업의 필요성과 蔡濟恭, 陸萬中 등 南人 元老들의 역할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3) 丁若鏞,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21, 「答二兒-丙子六月初四日」, “李基慶等戴蔡不難知也 京南嶺南 莫不慕之如父母 其心不可拔 則攻蔡之黨 終無統合午人之望 故爲此舉措 其意不難知也.”

74) 陸萬中, 『餘窩集』 권8, 「過故相宅 宅已三易主矣 馬上口占」, 1803년작. 正祖-純祖代 近畿 南人의 분화에 관한 정치사적인 접근은 최우혁, 2019 「正祖-純祖代 近畿南人의 분화와 정치 명분 확립」 『조선시대사학보』 90 참조.

## 4. 결론

이 글은 蔡濟恭을 중심으로 正祖 年間 南人이 정치 세력으로 결속하는 모습을 정리하였다. 蔡濟恭의 정치적 위상과 문학 활동은 南人 결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蔡濟恭을 중심으로 陸萬中, 李鼎運, 蔡弘履, 李益運, 李儒慶 등 여러 문인이 正祖 年間 南人으로서의 政體性을 유지하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다.

1770년대 후반에서 1787년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蔡濟恭과 陸萬中은 勢力 結束의 문학 활동을 함께 하며 政治 勢力으로서 南人을 지켜냈고, 嶺南 南人과의 연대를 공고히 했다. 1788년 이후 1790년대 蔡濟恭의 복귀로 南人 문인들의 환로가 넓게 트였는데, 南人 元老, 蔡濟恭의 직계 門下生 출신 문인들, 南人 新進들 사이에서 권력 배분 문제, 西學에 대한 입장 차이 문제 등으로 내부의 갈등이 잠재된 상태였다. 그러나 蔡濟恭과 陸萬中의 관계 유지를 통해 내부 갈등은 잠시 彌縫된 상태였고 크게 보아 남인이라는 정치 집단의 정체성이 유지되었다. 南人의 강한 결속력은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南人)는 백 년 동안 벼슬이 끊겨서 실로 다들만한 권세나 이익이 없었다. 사람마다 骨肉과도 같은 정이 있어서 만나면 속내를 드러냈고 비록 百 里 밖에 살아도 소식이 서로 통했으니 그 풍속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안 싸움의 변란이 일어났으니 아! 또한 참으로 불행이라고 하겠다.<sup>75)</sup>

1780년대 후반 南人 소장파들이 南人 원로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나온 위의 언급이 南人의 처지를 집약적으로 대변한다. 南人은 100년 동안 失勢 상태의 政派였지만 骨肉과 같이 결속력 있는 집단이었다. 政派의 위기 상황을 결속을 통해 극복했지만 이후 여러 측면에서 발생한 논공행상의 측면과 政治的 意見 개진에서 누군가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 南人 내부의 갈등, 즉 “집안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집과 기타 자료를 검토하여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된

75) “吾儕百年坐廢，實無勢利之可爭，人人情若骨肉，相對吐出肝膽，雖居數百里之外，聲氣相通，風俗可謂美矣。一朝而有同室操戈之變，吁！亦不幸之甚矣。”

문학 활동을 당사자들의 기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南人이 이러한 내부의 갈등을 수습, 또는 보합하고 동질적인 정치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발생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극복 여부를 추적했다. 또한 陸萬中, 李益運, 丁若鏞 등이 蔡濟恭 사후 正祖 年間 南人 文壇을 기억하며 기록한 내용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當代의 實狀과 後代의 記憶 사이의 歪曲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南人 文壇의 구도를 연배에 따라 대략 三分하여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丁若鏞 그룹의 위상도 가늠해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南人 문단의 지향, 성과, 의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상을 지적하고 인식을 바꾸고자 시도하는 데 그친 한계가 있다. 그리고 正祖 年間 南人 문단의 구도에 대해서도 관료 문인 중심으로 서술하여 논의가 미비한 점이 많은데, 李森煥 등 星湖 學派의 문인들,<sup>76)</sup> 石北 申光洙의 동생과 조카들인 申光河, 申禹相,<sup>77)</sup> 申奭相 등과 嘉林의 李晬光, 李聖求의 후손들, 李玄逸, 趙德鄰, 權萬, 權斗經의 嶺南 명문가 후손들, 柳台佐 등 正祖 年間 嶺南에서 진출한 문인들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도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sup>78)</sup>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주제어 : 南人, 蔡濟恭, 陸萬中, 李鼎運, 李益運, 李儒慶, 丁若鏞

투고일(2020. 2. 4), 심사시작일(2020. 2. 12), 심사완료일(2020. 2. 27)

76) 박동욱, 2013 『李森煥의 교유와 문학 활동』 『은지논총』 37.

77) 申禹相의 삶과 시문에 대해서는 김동준, 2012 『나운 신우상과 그의 시문에 대하여』 『돈암어문학』 25: 2013 『나운 신우상의 삶과 시문』 『문헌과해석』 62 참조.

78) 柳台佐에 대해서는 심경호, 2019 『鶴棲 柳台佐의 賡和와 應製에 관하여』 『동양학』 76: 김문식, 2019 『正祖代 柳台佐의 抄啓文臣 活動』 『동양학』 76 참조.

## 〈Abstract〉

## On the Namin(南人) literati's solidarity in King Jeongjo era

BAEK, SEUNGHO \*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mposition of Namin(南人) literati in “Academic Topography of King Jeongjo era” Namin was undermined in political power because of Gisahuangug(己巳換局) and Musin rebellion(戊申亂). Chae Jaegong(蔡濟恭) strengthened the bondage of literati through literary activities and established Namin as a significant political party in Yeongjo Jeongjo's Tangpyeong Government. In 1780s, he held the poetry club through which he assembled Namin literati in times of political frustration. Also he communicated closely with Yeongnam Namin(嶺南南人) through the literary works. In the 1790's, Chae was recognized by the King Jeongjo as the Uilijuin(義理主人) of Prince Sado(思悼世子)' respectful project but Namin suffered internal conflic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ir stance toward Catholicism. The conflict was temporarily closed by Chae's leadership with embracing both stances.

This article suggested Namin's solidarity rather than internal conflicts with the review of their own literary works.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status of Jeong Yagyong(丁若鏞) was promising literati in 1790s, and the political statuses of Yi Jeongun(李鼎運), Yi Igun(李益運), and Yi Yugyeong(李儒慶) were much higher than him. The literati who attached Chae such as Mog Manjung(睦萬中), Chae Hongli(蔡弘履) showed their deep friendship and respect for their colleague literati as Namin literati. The division and conflict of Namin is a perspective applied retrospectively in the 19th century, as misunderstandings and antagonisms have deepened in the situation of the Sinyubaghae(辛酉迫害).

**Key Words** : Namin(南人), Chae Jaegong(蔡濟恭), Mog Manjung(睦萬中), Yi Jeongun(李鼎運), Yi Igun(李益運), Yi Yugyeong(李儒慶), Jeong Yagyong(丁若鏞)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nam University.